SAEGAERO EDUCATION

Stage 10 Dustbin

Cover Note & 본문 번역

Cover Note	
About this Book (책에 대하여)	- 딜런은 무엇이든 모두 먹어버리는 뚱뚱한 개, 더스트빈에게 다이어트를 시키기로 마음먹어요. 그러나 딜런이 속이 빈 나무에 갇혔을 때, 더스트빈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덕에 나무를 씹어서 딜런을 구해내요. 딜런은 이 사실에 고마워해요.
Talking Points (대화 포인트)	- 앞 표지를 보고 이야기에 나오는 개의 이름이 왜 '더스트빈(쓰레기통)'이라 생각하는지 대화해 보세요. - 이 이야기에서 딜런과 더스트빈은 둘 다 입양된 가족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지 대화해 보세요. - 아이가 자신의 속도에 맞게 책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Read aloud (소리 내어 읽기)	- 17쪽부터 19쪽까지 함께 읽으세요. 4장의 제목인 '더스트빈, 씹기 시작하다' 를 참고해서 이야기의 뒷부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해 보세요.
After reading (책을 읽고 나서)	- 각기 다른 개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아이와 함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개의 성격에 맞는 이름을 붙여 보세요. 예를 들면 수영을 좋아하는 개는 '패들러(헤엄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요. - 책의 맨 뒷장에 있는 '글쓴이의 말'을 읽으세요. 이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면 미카엘라 모건의 또 다른 책 '셸리 홈즈'를 읽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셸리는 딜런의 누나입니다.)

Story Book (본문번역)	
p3	1. 안녕, 더스트빈! 딜런은 자기네 집 개 더스트빈과 공원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어요. 딜런과 더스트빈 둘 다 좋아하는 놀이는 '막대기 물어오기'였어요! 이것은 더스트빈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였어요.
p4	이 놀이의 규칙은 아주 간단해요. 1. 사람이 막대기를 던져요. 2. 개가 막대기를 쫓아가요. '아야!' '막대기가 어디 갔지?'
p5	3. 개가 막대기를 다시 가져와서 씹어요. 쉬운 놀이지만 많은 개가 실수해요. '여기 어디쯤 있는 것 같은데!' 더스트빈은 이 놀이를 정말로 잘해요. 그야말로 최고죠. 더스트빈은 막대기 씹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막대기가 좋아요' 어느 화창한 토요일, 딜런과 더스트빈은 공원으로 나갔어요. 더스트빈은 다른 개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했어요.
p6	불리와 불리의 주인..... 스포티와 스포티의 주인..... 피피와 피피의 주인..... 그리고 더스트빈과 더스트빈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다른 개 중 몇 마리는 더스트빈에게 썩 친절하지 않았어요. 더스트빈은 슬펐어요. '나한테 어울리는 개가 아니야!' '너무 뚱뚱하군!' '몸이 튼튼하지 않아.'
p7	딜런은 언제나 더스트빈에게 친절했어요.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딜런은 더스트빈을 사랑했어요. 딜런과 더스트빈은 둘 다 몇 년 전 가족에 입양되었어요. '엄마' '아빠' '셸리(우리 누나)'

	'딜런(나)' 딜런은 세 살 때 입양되었어요. 지금은 여덟 살이에요.
p8	더스트빈은 조그맣고 뚱뚱한 새끼 강아지였을 때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어요. 지금은 조그맣고 뚱뚱한 다 자란 개였어요. 더스트빈에 대해 식구들이 한 말은 모두 똑같았어요. '저 개, 뭐든지 씹어먹겠는데!'
p9	2. 불편한 날들 어느 한 주 동안 딜런은 학교에서 프로젝트 과제를 했어요. 건강한 식사습관에 대한 과제였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딜런은 점점 더 걱정되었어요. 딜런은 더스트빈을 걱정했어요. 더스트빈은 건강하게 먹지 않았어요. 안 좋은 음식을 먹었지요. 사실 더스트빈은 쓰레기를 먹었어요.
p10	더스트빈은 쓰레기통만 보면 쓰레기를 먹었어요. 가끔은 통까지 먹곤 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났고, 더스트빈은 점점 더 뚱뚱해졌어요. 딜런은 점점 더 걱정이 되었어요. "더스트빈을 수의사에게 데려가야겠어." 딜런이 말했어요. '쟤 좀 봐!'
p11	결국, 엄마는 이에 동의했어요. 가족들은 수의사에게로 갔어요. "흠....." 수의사가 말했어요. "닷새 동안 더스트빈이 먹는 모든 것을 일기에 기록하세요. 그리고 다시 와서 일기를 제게 보여주세요." 딜런은 일기를 아주 신중히 썼어요. 그리고 수의사에게 가지고 갔어요. 수의사는 일기를 오랜 시간 읽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p12	이것이 그 일기였어요. 월요일 개 사료 2접시, 물 1그릇 비스킷 6개 (초콜릿) 초콜릿 퍼지 케이크 1개 (케이크 상자도) 신발 한 짝 (검은색) 화요일 개 사료 2접시, 물 1그릇 비스킷 8개 (잼)

	생일 케이크 1개 (촛불도) 의자 1개 (작은 것) 수요일 개 사료 2접시, 물 1그릇 비스킷 10개 (커스터드 크림) 장바구니 1개 (장도) 식탁 다리 1개 (나무)
p13	목요일 개 사료 2접시, 물 1그릇 비스킷 11개 (분홍색 아이싱) 피자 1판 (상자도) 밀짚모자 1개 (바삭바삭함) 금요일 개 사료 2접시, 물 1그릇 비스킷 22개 (혼합) 베개 1개 팬티 1장 무릎 장화 1켤레 (질김) 양말 3짝 (냄새남)
p14	수의사는 일기를 모두 소리 내어 읽었어요. 그리고는 또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건강한 음식이 아니네요." 수의사가 말했어요. 딜런은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스트빈까지도 자신이 약간 창피한 것처럼 보였어요. '꺼억! 이런! 죄송해요!'
p15	"지금부터, 이 개는 매일 건강한 개 사료 딱 한 접시만 먹어야 해요. 물은 원하는 만큼 먹어도 돼요. 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씹는 걸 좋아한다면 씹는 막대기를 주세요. 이빨을 건강하고 뾰족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거에요." 수의사가 말했어요. 딜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운동을 많이 시켜야 해요!" 수의사가 덧붙였어요. "그럴게요." 딜런이 약속했어요.
p16	3. 운동! 가족들 모두 더스트빈이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딜런은 더스트빈을 산책시키고, 달리게 하고, 수영까지 시켰어요.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더스트빈은 점점 더 건강해졌어요. 털에서 윤이 나게 되었어요. 눈도 반짝였어요. 이빨은 빛이 났어요.

p17	일요일에 가족들은 더스트빈과 함께 숲으로 산책하러 나갔어요. 먼저 '막대기 물어오기' 놀이를 했고, '막대기 쫓기' 놀이를 개울에서 했어요. 더스트빈은 아주 좋아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는 '숨바꼭질'을 하기로 했어요.
p18	더스트빈은 이 놀이에 별로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바닥에 누워서 막대기를 행복하게 씹었어요. 엄마는 100까지 셌어요. 아빠와 딜런, 셸리는 달아나서 숨었어요.
p19	4. 더스트빈, 씹기 시작하다 딜런은 정말로 숨기 좋은 장소를 찾고 싶었어요. 그 순간 딜런은 어렸을 때 오래 묵은 텅 빈 나무 속에서 놀던 기억이 났어요. '거기 숨으면 정말 좋겠어!' 딜런은 생각했고, 달려가서 그 나무를 찾아냈어요. 안으로 기어들어 가기 쉬워 보였어요.
p20	나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딜런이 기억하는 만큼 쉽지 않았어요. 사실은 조금 꽉 꼈어요. '예전에 이 속에 들어왔을 때는 훨씬 작고 어렸었나 봐!' 딜런은 생각했어요. 딜런은 아주 가만히 숨죽이고 있었어요.
p21	엄마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비됐든 안 됐든, 이제 찾을 거야!" 엄마가 아빠를 찾는 소리가 들렸어요. '찾았다!' 엄마가 셸리를 찾는 소리가 들렸어요. '찾았다!' 딜런은 혼자 씩 웃었어요. 가족들은 딜런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를 거에요. 가족들이 딜런의 나무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p22	그러고는 가족들이 지나쳐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족들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더 작아졌어요. '내가 이겼어!' 딜런이 생각했어요. 이제 나무 밖으로 나와서 가족들을 놀래 줄 때가 왔어요. 딜런은 몸을 빼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팔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p23	딜런은 몸을 꿈틀거려서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나무에는 작은 구멍이 나 있었어요. 딜런은 구멍에 대고 몸을 밀려 했어요. 그러나 소용없었어요. 딜런은 갇혀버렸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딜런이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최대한 크게 소리 질렀어요.

	'도와줘요!'
p24	다시 뛰어오는 발 소리가 들렸어요. "나 여기 있어요!" 딜런이 외쳤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거니? 어서 나와!" 딜런의 엄마가 말했어요. "안 돼요! 몸이 꼈어요!" 딜런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p25	엄마는 쭈-우-욱 당겼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아빠는 밀었어요. 달라진 점이 없었어요. "몸이 꼈어요! 꺼내줘요!" 딜런이 울먹이면서 소리쳤어요. '꺼내줘요!' 오직 더스트빈만 조용했어요. 더스트빈은 막대기를 씹으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p26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어요. 딩동! 더스트빈은 나무로 총총 다가갔어요. 나무에 잠깐 코를 킁킁거렸어요. 아주 찬찬히 나무를 살펴보았어요. 그러더니, 차분하고 조용하게, 더스트빈은 씹기 시작했어요.
p27	그건 오래된 나무였어요. 썩은 나무였고, 더스트빈의 이빨은 매우 뾰족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쉽지 않았어요. 와작, 와작, 와작, 더스트빈은 뾰족하고 하얀 이빨로 나무를 씹었어요. 우적, 우적, 우적, 더스트빈은 씹었어요. 질겅, 질겅, 질겅, 그리고 앙!
p28	이제 나무에는 훨씬 큰 구멍이 생겼어요. 꿈틀거리고……꼼지락거리고……도움을 조금 받자…… 딜런은 밖으로 나왔어요.
p29	엄마와 아빠, 누나가 딜런을 껴안았어요. 하지만 딜런은 더스트빈을 가장 크게 껴안았어요. "넌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개야!" 딜런이 말했어요. "그러니 너에게 굉장한 선물을 줄게."
p30	다음날, 다른 개들은 더스트빈이 어떻게 딜런을 구했는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뾰족한 이빨이야!' '더스트빈은 영웅이야!' '더스트빈 정말 똑똑하다!'

	이제 개들은 더스트빈에게 훨씬 친절했어요. '튼튼해 보이는데? '와!' '좋아 보이는군!'
p31	다른 개들 모두 더스트빈에게 몇 마디 할 말이 있었지만, 더스트빈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꺽! 꺼억! 이런! 미안해!' '잘했어, 더스트빈!'
about the author 글쓴이의 말	나도 개를 키운 적이 있어요. 그 개는 막대기를 정말 좋아했고, 나는 그 개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야기에 등장시키기로 했지요. 내 동화 속 인물들은 만들어 낸 인물들이지만, 종종 실제로 있었던 누군가에게서 나오기도 해요. 더스트빈은 우리 개를 조금 닮았어요. 지금은 이야기 세 편에 등장하죠. 더스트빈은 이 책에서는 주인공이지만 딜런의 누나 셸리 홈즈에 대한 Treetop stories의 책 두 권에도 나와요. 더스트빈처럼, 여러분도 킁킁 냄새를 맡아서 그 책을 찾아낼 수 있을 거에요. 하지만 찾아내더라도, 절대 씹지는 마세요!